

전국지와 지역지의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적 고찰

구교태·김세철*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대학 전임강사·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대학 교수)

본 연구는 국제뉴스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국제뉴스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 내 국제뉴스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틀로서 본 연구는 정보 상품으로서 뉴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미디어 경제학적 논의를 근거로, 신문 시장 규모에 의한 국제뉴스 보도의 유의미한 차별화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정보 불평등 논의가 시장 규모별로 어떻게 특성화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정적 뉴스에 대해 신문사 유형(지역지, 전국지)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적 뉴스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더 많이 보도됨으로써, 국가간 정보 불평등 현상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를 본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규모에 의한 신문사 유형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보도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장 규모에 의한 뉴스결정과 국제 정보질서 운동에 대한 논의는 기사의 수와 보도량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키워드: 국제뉴스, 뉴스생산, 시장규모, 뉴스 유형

1. 서론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정보흐름에 관여하는 국내외 매스미디어 역할과 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을 이끌어왔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중개된 메시지를 통해 다른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매스컴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왔고, 연구 결과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 구교태(e-mail): gyotae@kmu.ac.kr; 김세철(e-mail): ksc@kmu.ac.kr

국제뉴스들이 상호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cNelly & Izcaray, 1986; Perry, 1987, 1990). 예를 들어, 페리(Perry, 1990)는 타 국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의 양이 그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그 나라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국제뉴스의 양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 국가를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간 인식에 있어서의 정보의 양적인 효과 외에, 국제정보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왔다. 먼저, 매스미디어를 통한 국제적 정보의 긍정적 기능을 언급하는 학자들은 국제정보 흐름이 문화적 격차들을 줄여주거나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¹⁾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매스미디어가 외국 문화의 대리인(agent)으로서, 각 지역에서의 권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하여 전통적 가치의 파괴와 계층간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Jeffres, 1997). 따라서 국가간 정보흐름의 양과 전달된 구체적인 정보내용은 개별 국제뉴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제뉴스가 유통되는 국가 내의 사회·문화적 지형에도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속도와 범위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신문사들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역 거주자를 통신원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거대 국제 통신사들이 담당했던 뉴스들을 점증적으로 보완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뉴스 생산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던 서구 메이저 통신사들에 대한 의존이 “DPA(Deutsche

1) 발전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러너(Lerner, 1958)의 관점에서 미디어는 변화를 가속화하고 문화적 영향에 있어 전통적 기제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슈람(Schramm, 1964)에 따르면 국가발전에 관련된 미디어의 기능들은 지평 확대를 위한 감시자로서 행동하는 기능,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을 일조하는 기능, 국민을 교육시키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Press Agentur)나 “신화사” 같은 국제 통신사들의 적극적 진출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다원화된 정보 매개자들을 통해 수집된 국제관계 정보들은 전국적, 지역적 규모의 언론사들에 도달되고 언론사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을 통해 최종 국제 뉴스로 상품화되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국 신문들이 국제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제뉴스와 정보들을 개별 국가들에 전달하는 세계 주요 통신사들에 여전히 많은 부분 의존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국제뉴스는 국가 내의 언론사들에 의해 새롭게 취사 선택되어지고 재분배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내뉴스 기관들은 획득된 외신 정보들을 자신의 프래밍(framing) 과정을 통해 국제뉴스들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간 혹은 문화간 거대 담론적 의미 분석에 치우쳤던 기존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구체적인 국제뉴스 생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국제뉴스 흐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에서 재분배되어지는 뉴스 생성 과정에 대한 측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뉴스가 국내 미디어를 통해 재분배되거나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제뉴스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뉴스선정이라는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김경모, 2000). 뉴스의 국내 재분배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가 속한 시장규모가 뉴스내용의 양과 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yu, 1982; McManus, 1990, 1994, 1995; Carroll & Tuggle, 1997). 이들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장논리에 따른 정보흐름 연구는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 들어온 국제뉴스가 어떻게 국내에서 재상품화되는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장규모에 의한 뉴스 상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미디어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어떻게 국제뉴스 보도가 국내에서 재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관련한 국제뉴스의 양과 질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시장규모별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기존 문헌 연구

1) 국제뉴스 연구의 흐름

국제뉴스 흐름에 대한 비판론적 이론과 분석들은 서방 선진국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발달과 관련되어 활발히 논의되어왔다(Reeves, 1993). 특히 ‘국제정보질서’ 분석에 폭 넓게 사용되어온 종속이론의 확장된 접근인 세계체제론자들의 경제적 관점은 국제정보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되어왔다. 세계체제론자들은 세계정보흐름에 있어 중심국(the mother country)이 주변국(the peripheral country)에 대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처리해주고 그러한 체계를 통해 엘리트 국가에 대한 인지적 세계를 구조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Wallerstein, 1987). 이처럼 세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평등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O)’과 관련하여 국제뉴스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국제뉴스에 관한 국내의 대다수 연구들은 중심국에서 주변국으로의 뉴스 흐름 현상과 4대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뉴스보도의 불균형 현상을 다루어왔다(김원태, 1991). 한국 신문에 나타난 국제뉴스 보도경향들에 대한 분석은 한국 신문들이 선진국에 대한 보도가 많으며 서방 4대 통신사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김원태, 1991).

뉴스 내용적 측면에서, 재앙, 기근, 부패, 전쟁, 정치적 음모, 혼란 등과 같은 발전뉴스(development news)들이 국제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오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제뉴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서방 언론에 보도된 세계체제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적, 강대국 지배적, 그리고 서방 지향적이다(Semmel, 1976; Potter, 1987). 또한 경제적으로 열세한 국

가들에 대한 뉴스들의 많은 부분은 폭력과, 위기, 그리고 갈등 등과 관련된 뉴스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왔다(Haque, 1983; Lent, 1977; Weaver & Wilhoit, 1981).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 엘리트 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포터(Potter, 1987)에 따르면, 선정적 뉴스 기사들(자연재앙, 사고, 범죄, 전쟁 등)이 국가간 불균등 보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다수 정보들은 갈등과 위기의 부정적인 기사들로 형성되어 세계 정치·문화의 불평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주요 일간지의 국제뉴스 보도 형태를 분석한 이상철의 연구(1997)에 있어서도, 제3세계는 세계인의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가 차지하는 국제뉴스의 양은 약 15%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도된 내용에 있어서도 제3세계는 '갈등 뉴스'와 관련된 기사가 주종을 이룬 반면 선진국은 '비갈등 뉴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제뉴스 흐름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강대국의 뉴스가 불균형하게 약소국으로 흐르고 기사량도 약소국보다 강대국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약소국과 관련된 많은 뉴스는 부정적, 갈등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Peterson, 1981).

기존의 국제뉴스 흐름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미디어 체계 내에서 어떻게 국제뉴스가 상이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이들 보도에 관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는 많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뉴스가 한 국가 내에서 어떻게 재생산되고 분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규모에 의한 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이 국제뉴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2) 국가 내 국제뉴스 유통

국제정보가 국내 언론사별로 어떻게 재처리되어 보도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몇몇 연구들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박천일(1995)은 국내외 텔레비전 방송에서 선정되는 국제뉴스의 선정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

과 뉴스룸 구성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가별 차이를 밝히고 있다. 분석된 세 방송사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CNN이 시장 지향적인 산업적 관점에서 국제뉴스 스토리를 선정하는 반면, 정치적 요인에 의존하는 KBS와 SBS 저널리스트들은 국익 차원에서 각 국제뉴스를 해석하거나 한국과 자국민에게 적합한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뉴스를 취급하는 방송조직의 구체적 통제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한 박천일의 연구(1995)는 언론사 취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미디어 결과물인 국제뉴스에 대한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또한 심재철의 연구(1997)는 뉴스 가치적 측면에서 국내 일간지들의 국제뉴스 보도경향을 탐구함으로써, 국내에서 보도된 국제뉴스의 뉴스가치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분석된 뉴스가치들에 대한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설명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 즉, 보도된 뉴스가치들에 대한 현상적 설명을 넘어 신문사별 차별화된 뉴스가치의 원인을 검토하고 추론해보는 노력은 적어보인다.

한편 국제뉴스의 보도행태를 중앙지와 지방지를 비교분석한 김원태의 연구(1991)는 국제뉴스 비중 정도와 통신사 의존을 차이 등에서의 신문사(전국지, 지역지)간 차이를 규명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차이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 또한 김경모의 연구(2000)는 10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사 조직적 환경에 의한 국제뉴스의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각 신문사 조직의 가용자원과 그 활용정도, 그리고 정보처리능력 변인들이 국제뉴스 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엄밀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분석된 선행변인들이 다섯 가지 보도유형과 관련된 국제뉴스의 유사성에 국한되어 기존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관련된 국가간 정보흐름에 대한 규범적론 논의는 다소 간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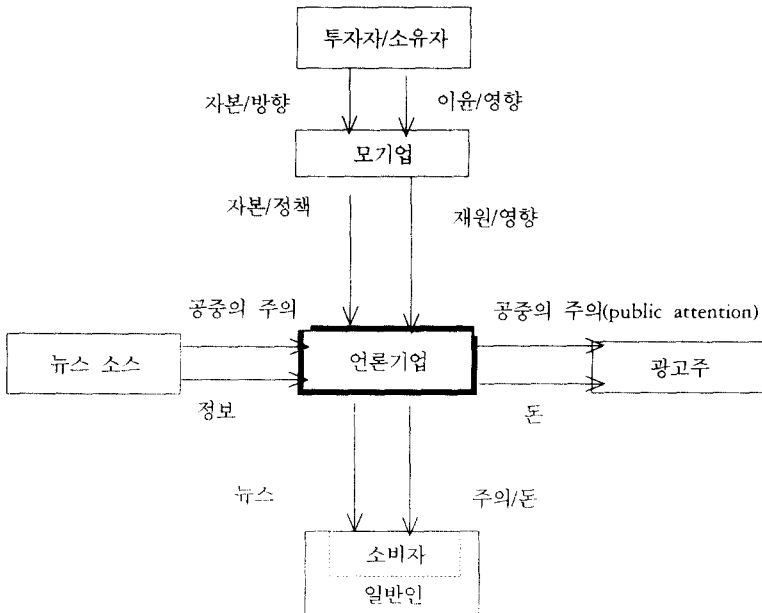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뉴스의 국내 유통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 실제 국제뉴스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국내의 국제뉴스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국제뉴스를 기존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뉴스가 각 매체에 달리 보도되고 국가별 정보

불평등 정도가 매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국내 미디어 이용자들의 세계관은 왜곡되거나 이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내의 국제뉴스 흐름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학적 모델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를 통해 국가 내 재생산 과정을 거치는 국제뉴스는 언론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맥마누스(McManus, 1994)의 미디어 경제학적 모델은 상품으로서의 국제뉴스가 국가 내에서 재생산되는 패턴을 밝혀주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은 투자자, 정보원, 광고주, 그리고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래 <그림1>에 나타나듯, 합리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그림 1> 상품으로서의 뉴스(McManus, 1994)



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양산해야 하며, 광고주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다수의 수용자를 확보해야 한다(McManus, 1994). 또한 뉴스보도들은 뉴스 조직이 작동하는 정치 경제학적 체계를 위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Soloski, 1989). 그래서 신문은 다수의 수용자를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사들을 생산해야 한다. 이처럼 뉴스제작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미디어 조직의 목표 아래에서 국내뉴스와 국제뉴스 간 기사선정 원칙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김경모, 2000; Lacy, Chang, & Lau, 1989).

결국 국제뉴스가 대중 소비를 위해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뉴스 상품화되는 과정은 경제적 이윤추구의 논리를 통해 결정되며, 경제적 이익과 상충되는 정보들은 직·간접적 검열을 받거나 제거된다는 것이다(Musa, 1990). 그러면 뉴스 상품에 대한 경제 메커니즘은 뉴스 상품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관여하는가? 기업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선호된 기사에 대해, 드플로와 볼로키치(Defleur & Ball-Rokeach, 1989)는 범죄, 폭력 등과 같은 “저급 취향(low taste)”의 내용이 미디어 체계의 경제적 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시장규모 변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Musa, 1990; Tichenor, Donohue, & Olien, 1980). 이들 논의에는 언론사의 시장규모가 소규모 혹은 대규모인가 여부가 뉴스 내용의 특성을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구조가 복잡하며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갈등성이 높은 뉴스를 선호하고, 구조가 단순한 지역 사회에서는 갈등적 뉴스보다 전체적 동의(consensus)를 위한 접근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시장에 위치한 언론은 다수의 매체이용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상업주의적 노력이 배가되어, 실질적인 정보보다 스포츠, 스캔들, 사건, 사고 등과 같은 흥미위주의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Musa, 1990). 이런 시장규모에 따라 유사한 뉴스의 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미디어뉴스그룹(MediaNews Group)의 CEO인 싱글턴(Singleton, 1990)은 신문사의 부담은 엄청난 자본 지출을 만회할 이윤 획득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며, 그러한 언론사의 부담은 특히 더

큰 규모의 시장에 위치한 언론사들에게 더욱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뉴스의 보도형태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중앙일간지 국제면의 기사선정 유사성에 대한 연구(김경모, 2000; Kim, 2003)는 국제부의 규모(국제부 인원수)와 해외특파원 배치형태 등이 국제보도 유사성(동일한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하는가 여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뉴스 보도의 유사성에 관여하는 이들 두 변인들은 언론사의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규모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수 있다. 즉, 전국지에 비해 지역지는 국제부 인원이나 특파원 배치가 취약(김원태, 1991)하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시장에 대한 국제뉴스의 보도 형태는 미디어 경제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방송내용의 경우에 있어, 루(1982)는 큰 규모의 시장에 위치한 방송국들이 강력한 미디어간 경쟁으로 인해 시청률의 변동 폭이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압력은 오락 중심적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캐롤의 연구(Carroll, 1985) 또한 작은 규모의 시장에 위치한 뉴스기관이 덜 오락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들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분석은 큰 규모의 시장에 위치한 방송사들이 범죄, 사고, 재앙, 전쟁 등과 같은 선정적(sensational)이거나 흥미위주(human interest)의 내용에 더 많은 기사들을 할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arroll & Tuggle, 1997). 결국 이들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는 큰 규모의 시장에 위치한 언론사는 보다 높은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앞서 언급된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매출규모나 독자의 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 언론사 시장규모가 국내 유통되는 국제뉴스의 보도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가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신문에 보도된 국제뉴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장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미디어 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의 기사들은 ‘신국제정보질서운동’ 논의에서 개발도상국들에 할당된 부정적인 뉴스의 특성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시장규모별로 어떠한 형태의 미디어 내용물이 강조되어 보도되는 것처럼, 국내에서 국

제뉴스는 언론사의 시장규모에 따라 재생산되어 소비자들에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정 유형의 국제뉴스가 언론사의 시장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강조되어 국가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을 개념화하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신문의 국제뉴스 분석을 위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국제정보질서운동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에는 양적이고 질적인 불평등 뉴스 흐름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내 영역에서 언론사의 국제뉴스 보도는 시장규모에 따라 상이한 뉴스상품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뉴스가 하나의 정보 상품으로서 어떻게 국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가설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의 국제뉴스 생산 메커니즘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국제뉴스 보도에 있어 시장규모에 의한 신문사 유형(전국지, 지역지)과 뉴스의 유형(선정적, 공공적)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국제뉴스 보도는 국가 유형(제1세계, 제3세계)과 ‘뉴스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국제뉴스 보도는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질 것이다.

먼저 <연구가설 1>은 국제뉴스가 하나의 정보 상품으로서 어떻게 국내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과 미디어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큰 시장규모에 위치한 미디어가 선정적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규모가 작은 미디어는 공적 사건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사의 시장규모에 대한 논의가 국제뉴스의 국내 유통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를 <연구가설 1>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2>는 기존의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관련하여 국가 유형(제1세계, 제3세계)별 뉴스의 질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제시되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제3세계에 대해 부정적이고 갈등적 뉴스의 빈번한 보도들이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국가별로 선정적 혹은 공공적 뉴스의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검토될 것이다.

<연구가설 3>은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에 따른 국제뉴스 보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지는 전국지에 비해 국제뉴스 취재에 대해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국제부 인원, 특파원 등) 국제뉴스에 대한 관심 또한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원태, 1991). 국제뉴스 보도에 대한 지역지의 제한점들은 국제뉴스에 대한 적은 보도량과 관계되고, 적은 보도량은 뉴스 가치 측면에서 지명도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 의존을 강화하고 지명도 낮은 국가에 대한 의존은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을 통해 신문사 유형에 따른 국가별 뉴스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시장규모에 따른 국제뉴스 보도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상이한 독자시장에 위치한 지역지와 전국지를 매출규모와 발행부수 기준으로 각 두 개씩 선택하였다. 한국언론재단 매출액 현황자료(2003)와 발행부수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지로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전국지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시기를 위해 연구자는 '무작위표본추출표'를 사용하여 분석할 2002년 달과 날짜를 차례로 선택하였다. 1/25, 2/14, 3/4, 4/18, 5/22, 6/7, 7/31, 8/17, 9/4, 10/9, 11/4, 12/2.

본 연구에서 국제뉴스는 기존 연구들(심재철, 1997; 이상철, 1997)처럼

통신사나 신문사 자체 특과원, 통신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온 뉴스로 정의되었지만, 분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그 기사의 출처 경로가 반드시 밝혀진 개별 기사만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사의 출처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대다수의 해설이나 논설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출처 경로가 밝혀진 기사라 하더라도 한국만을 다룬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외국 경기에 참가한 한국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나 해외에서의 한국 정치관련 동정기사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개별 국제뉴스를 코딩하기 위해서 선정된 4개 신문사의 해당 날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된 국제뉴스 기사들은 다운로드하였고 사진의 경우 관련된 신문지면을 통해 직접 분석되어졌다. 본 연구는 기사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받은 기사 내용들의 글자수를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고, 사진기사의 경우 신문지면의 사진 사이즈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사이즈에 게재될 수 있는 글자수를 측정하여 기사별 양을 파악하였다. 기사의 형태(문자기사, 사진기사, 복합기사)와 기사의 위치(1면기사, 섹션1면기사, 기타)에 관한 분석도 추가로 이뤄졌다.

국제뉴스의 유형은 기존 문헌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선정적, 공공적 뉴스)로 유목화되었다(Carroll, 1985; Carroll & Tuggle, 1997; Defleur & Ball-Rokeach, 1989; Ryu, 1982; Tichenor, Donohue, & Olien, 1980). ‘공공적 뉴스’에 속하는 것들은 정부 혹은 정치적 정보(정치적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과 위기의 기사는 제외), 특정 지역관련 정보, 외교, 복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다. 한편 ‘선정적 뉴스’는 범죄나 재판, 사건, 사고, 자연재앙, 전쟁, 흥미위주의 기사(human interest)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며, 스포츠, 과학, 운송 및 운행, 교육, 종교, 예술, 자선(philanthropy) 등과 관련된 기사는 ‘기타’로 분류되었다.

국제뉴스의 유형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들은 제1세계와 제3세계로 분류되었다. 제3세계는 남아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러시아와,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고, 제1세계와 관련된 국가들

은 북미, 서유럽,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등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이다. 국가간 분류를 위해 구체적으로 나열된 제3세계 국가 목록(122개국)이 참고되었다(Kurian, 1992). 그러나 분석된 국제뉴스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혼재되어 어느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기타'로 분류되었다.

국가 유형(제1, 제3 세계)과 국제뉴스 유형(공공적, 선정적) 항목에 대해 전체기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20개의 기사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 검정이 이뤄졌다. 크리폰도프(Krippendorf)의 공식을 이용한 코더간 신뢰도는 1.0과 .9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가설 검정을 위해 코딩된 자료에 대해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한 통계분석이 이뤄졌다. 기사수와 기사량에 대한 단순비교를 지양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들은 기사수의 상대적 비율과 평균 보도량 측면에서 통계적 해석이 이뤄졌다. 또한 각 측정에서 '기타'로 분류된 항목들은 사례수가 타 항목에 비해 적고 연구가설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5. 연구결과

분석기간 동안 파악된 국제뉴스는 총 673개로 나타났다. 지역지인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각 126개와 113개의 국제 기사를 보도한 반면, 전국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 215개와 219개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제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지역지의 국제뉴스 평균 보도량은 전국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뉴스 기사별 평균 보도량에 있어 전국지인 조선일보는 기사 평균 1250문자의 기사를 제공한 반면, 지역지인 매일신문과 부산일보는 각 641문자와 744문자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전국지인 조선일보와 달리 국제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분석된 지역지들과 비슷한 규모의 평균 기사량을 보여주었다(기사 평균 715문자).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제뉴스의 형태는 문자기사가 54%, 사진기사가 19%, 그리고 문자와 사진이 병행된 기사가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된 국제뉴스에서 사진기사의 비율이 다른 형태의 기사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지만, 조선일보의 사진기사 사용비율은 타 신문사들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30.2%). 전체적으로 분석된 국제뉴스 형태는 문자기사, 문자와 사진을 병행한 기사, 그리고 사진기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지에 있어 조선일보의 국제뉴스들은 타 신문사들에 비해 세 가지 기사유형을 비슷하게 사용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유형별 기사형태의 차이를 보면, 지역지는 전국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진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부산-14%, 매일-9% vs. 조선-30%, 중앙-17%). 따라서 전국지들은 국제뉴스 보도에 있어 지역지보다 다양한 뉴스 포맷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문사별 보도된 국제뉴스의 기사유형 (단위: 기사 수)

신문사 \ 기사유형	문자기사	문자/사진	사진기사	계
부산일보	70	38	18	126
	55.6%	30.2%	14.3%	100.0%
매일신문	85	18	10	113
	75.2%	15.9%	8.8%	100.0%
조선일보	75	75	65	215
	34.9%	34.9%	30.2%	100.0%
중앙일보	134	48	37	219
	61.2%	21.9%	16.9%	100.0%

국제뉴스 기사의 위치를 신문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지인 조선과 중앙은 각 8개의 국제뉴스를 신문 1면에 보도한 반면 지역지인 부산과 매일은 각 1개와 2개의 국제뉴스만 1면에 보도하였다. 신문 1면에 실린 뉴스의 비중이 다른 지면의 기사들보다 중요하게 취급됨을 고려할 때, 분석된 지역지들은 전국지들에 비해 국제뉴스 기사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673개 국제뉴스의 출처를 살펴보면 AP통신사가 199개 기사로 가장 많고 특파원에 의한 기사가 179기사에 이르러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서구 메이저 통신사들에 의한 뉴스가 전체의 약 48%에 이르고 국내 통신사에 의한 기사는 전체의 약 23%로 나타나 이들 통신사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유형별 기사의 출처를 살펴보면, 지역지는 연합통신에 의존한 뉴스가 가장 많은 반면(전체의 34.7%), 전국지는 특파원에 의한 기사의 수가 가장 많았다(40.6%). 비록 적은 수의 기사이지만 전체 국제 뉴스에서 통신원에 의한 국제뉴스 기사가 16개에 이르고 있다. 통신원에 의한 뉴스 대다수가 지역지에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지가 특파원에 의한 뉴스 기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뉴스 취재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 한편 기존의 세계 4대 통신사 외 DPA(Deutsche Press Agentur)에 의한 4개의 국제기사도 파악되었다.

<표 2> 신문사 유형별 국제뉴스 출처 (단위: 기사 수)

신문사 유형	지역지	전국지	계
특파원	3	176	179
AP	76	123	199
UPI	1		1
Reuter	3	22	25
AFP	55	41	96
연합	83	53	136
통신원	14	2	16
DPA	4		4
로이터뉴스스		17	17
계	239	434	673

<연구가설 1>은 신문사 유형(전국지, 지역지)과 뉴스 유형(선정적, 공공적)간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표 3>이 보여주듯, 국제뉴스 보도는 신문사 유형과 뉴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chi^2 = 5.451$, $df = 1$, $p = .024$).

<표 3> 신문사와 뉴스 유형별 국제뉴스

뉴스 유형 \ 신문사 유형	지역지		전국지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비율(%)
선정적	103	45	128	35
공공적	126	55	234	65
합 계	229	100	362	100

위의 <표 3>에 따르면, 지역지는 전국지에 비해 선정적 국제뉴스 보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국지는 지역지에 비해 공공적 국제뉴스를 더 많이 보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사 유형과 국제뉴스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문헌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선정적 국제뉴스가 지역지보다 전국지에서 더 많이 나타나거나 공공적 뉴스가 지역지에서 많이 보도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유형과 뉴스 유형별 보도된 국제뉴스 기사수에 대한 분석 외에도 이들 두 변인에 의한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아래 <표 4>는 신문사 유형과 뉴스 유형에 따른 국제뉴스 보도량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문사 유형과 뉴스 유형은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국제뉴스의 보도량 평균은 전국지 내 선정적인 뉴스가 1149문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지의 공공적 뉴스의 보도량이 평균 646문자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뉴스 보도량은 신문사와 뉴스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표 4> 신문사와 뉴스 유형별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한 변량분석

신문사 유형	뉴스 유형	평 균	표준편차	통계량
지역지	선정적	711.87	520.65	F=9.085 df=3, 587 p= .000
	공공적	646.85	526.54	
전국지	선정적	1149.93	1416.79	
	공공적	744.47	706.62	

로 나타났다($p=.000$).

앞서 살펴본 <표 3>에서 지역지와 전국지는 선정적 뉴스보다 공공적 뉴스에 대한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표 4>의 기사별 평균 보도량을 살펴보면 지역지와 전국지 모두 선정적인 뉴스에 대한 보도량이 공공적 뉴스에 대한 보도량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지의 공공적 뉴스에 대한 선정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은 지역지의 경우 보다 높은 비율로서 보도되고 있다.

위의 변량분석에서 사용된 4가지 범주에 대한 Scheffe의 다중비교 분석 결과는 6가지 사례 중 3가지의 경우에 있어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참조). 먼저 전국지에서 선정적인 국제뉴스와 공공적인 국제뉴스 보도량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평균 뉴스 보도량의 차이는 약 405 문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전국지는 공공적 뉴스보다 선정적 뉴스에 대한 평균 보도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지에서 선정적인 국제뉴스 보도는 지역지의 선정적인 보도 그리고 지역지의 공공적인 보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지의 선정적인 보도량 평균은 지역지의 선정적 보도와 공공적 보도에 대한 평균 보도량과 약 438문자와 503문자의 차이를 보

<표 5> 신문사와 뉴스 유형별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집단 I	집단 II	평균차 (I-II)	표준오차	유의확률
지역지/선정적	전국지/선정적	-438.06	113.76	.002
	전국지/공공적	-32.60	101.62	.991
지역지/공공적	전국지/선정적	-503.08	107.85	.000
	전국지/공공적	-97.63	94.97	.788
지역지/선정적	지역지/공공적	65.02	114.16	.955
전국지/선정적	전국지/공공적	405.46	94.48	.000

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지의 선정적인 국제뉴스 보도량은 지역지에서 선정적이거나 공공적인 뉴스 보도량보다 평균 기사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다중비교분석 결과는 뉴스 유형 중 선정적 뉴스에서만

신문사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뉴스 보도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적 뉴스에서의 신문사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본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가설 1>은 보도량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즉, 신문사 유형(전국지, 지역지)과 뉴스 유형(선정적, 공공적) 간 유의미한 차이는 뉴스 유형에 따른 신문사별 평균 기사량에 있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정적 뉴스의 평균 기사량이 지역지보다 전국지에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보도내용에 대한 시장 규모의 영향을 가설화한 미디어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적 뉴스 내용에 대한 시장규모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은 ‘국가 유형’에 따라 보도된 ‘뉴스 유형’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설 2>의 분석결과이다. 아래 <표 6>에 따르면, 보도된 국제뉴스의 ‘국가 유형(1세계, 3세계)’은 ‘뉴스 유형(선정적, 공공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917$, $df=1$, $p=.000$). 분석된 전체 국제뉴스에서 공공적 주제와 관련된 뉴스보도가 전체의 약 60%에 이르고 선정적 뉴스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약 40%를 기록함으로써, 공공적인 국제뉴스 보도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간 뉴스 유형을 살펴보면, 제3세계에 대한 선정적 뉴스의 비중은 분석된 기사의 과반수를 넘어(53.7%) 공공적 뉴스와 관련된 보도(46.3%)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제1세계에 대해 보도된 뉴스 유형은 공공적 이슈들과 관련된 보도가 선정적 보도를 넘어

<표 6> 국가 유형별 보도된 국제뉴스 유형 (단위: 기사 수)

국가 유형 뉴스 유형	제1세계	제3세계	계
선정적	148 35.1%	80 53.7%	228 39.9%
공공적	274 64.9%	69 46.3%	343 60.1%
계	422 100.0%	149 100.0%	571 100.0%

서고 있다(64.9% 대 35.1%). 따라서 제3세계와 관련된 보도들이 더 부정적인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뉴스 기사수에 대한 ‘국가 유형(1세계, 3세계)’과 ‘뉴스 유형(선정적, 공공적)’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2>는 국제뉴스 보도량 측면에서도 분석되었다. 아래 <표 7>은 ‘국가 유형’과 ‘뉴스 유형’별 국제뉴스 보도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1세계와 제3세계에 대한 선정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이 공공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을 넘어서고 있다. 제3세계에 있어 공공적 뉴스보다 선정적 뉴스 기사가 많았던 것처럼 보도량에 있어서 선정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이 공공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국제뉴스는 선정적 기사가 공공적 기사에 비해 많고, 또한 보도량에 있어서도 선정적 보도가 공공적 보도보다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1세계에 대한 국제뉴스에서, 공공적 뉴스에 대한 기사의 수는 선정적 뉴스보다 많았지만, 보도량에 있어서는 선정적 뉴스의 평균 보도량이 공공적 뉴스의 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제3세계에 대한 국제뉴스는 공공적인 뉴스내용보다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많으며, 보도량에 있어서도 선정적인 내용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간 정보흐름에서 제3세계에 대한 불평등한 정보의 질과 양을 지적한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O)의 주장이 오늘날 여전히 미해결 과제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아직도 국가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뉴스 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1세계에 대한 국제뉴스 유형 분석은 공공적 기사의 수가 선정적 기사의 수보다 많아 제3세계와 차별화된 것으로 나

<표 7> 국가 유형과 뉴스 유형별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통계량
3세계	선정적	890.66	1027.28	114.85	F = 3.851 df = 3, 567 p = .010
	공공적	657.00	541.07	65.14	
1세계	선정적	992.97	1192.58	98.03	
	공공적	727.12	684.60	41.36	
합계		810.47	887.80	37.15	

타났지만, 평균 보도량에 있어서는 공공적 기사보다 선정적인 기사에 대한 보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3세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정보흐름에 대한 신국제정보질서운동 논의가 보도된 국제뉴스 기사의 수와 양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기된 <연구가설 3>은 국제뉴스 기사가 신문사 유형(지역지, 전국지)과 국가 유형(1세계, 3세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국제뉴스는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사 차이를 보여주었다($\chi^2=42.77$, $df=1$, $p=.000$). <표 8>에 따르면, 분석된 신문들 중 전국지는 434개의 국제뉴스를 보도한 반면, 지역지는 전국지의 절반에 가까운 219개의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된 국제뉴스에서 492개의 뉴스(75%)가 제1세계와 관련된 뉴스들이며 제3세계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161개(25%)에 이르고 있다.

<표 8>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별 국제뉴스

신문사 유형 \ 국가 유형	지역지		전국지		합계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비율(%)	기사 수	비율(%)
제1세계	131	60	361	83	492	75
제3세계	88	40	73	17	161	25
합계	219	100	434	100	653	100

제1, 제3세계에 대한 기사의 비율은 전국지와 지역지 간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지는 제1세계에 대해 131개 기사(60%),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해 88개 기사(40%)를 보도한 반면, 전국지는 제1세계에 대해 361개 기사(83%)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해 단지 73개의 뉴스(17%)만을 보도함으로써 국가간 유의미한 기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간(제1, 3세계) 국제뉴스 기사 수의 차이에 있어 전국지는 지역지보다 제1세계에 대해 보다 많은 기사를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국제뉴스 기사 수 할당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전국지가 지역지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별로 유의미한 국제뉴스 보도량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변량분석이 이뤄졌다. 두 집단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문사 규모(지역지, 전국지)와 국가 유형(1, 3세계)에 따른 국제뉴스 보도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678$, $df=3, 647$, $p=.003$). 아래 <표 9>에 따르면, 전국지의 국제뉴스 보도에서 제3세계에 대한 보도량(평균=1601.82, 표준편차=1345.82)은 제1세계에 대한 보도량(평균=963.88, 표준편차=1044.0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지는 제1세계에 대한 국제뉴스 보도량이(평균=737.00, 표준편차=564.25) 제3세계에 대한 보도량(평균=639.38, 표준편차=518.3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지는 제1세계에 대한 뉴스 보도량이 높은 반면 전국지는 제 3세계에 대해 더 많은 기사량을 게재하고 있다.

<표 9> 신문사와 국가별 국제뉴스 보도량 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지역지	3세계	639.38	518.35	F=4.678 df=3, 649 p=.003
	1세계	737.00	564.25	
전국지	3세계	1061.82	1345.82	
	1세계	963.88	1044.06	
합계		885.58	959.53	

신문사와 국가별 요인에 대한 4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국제뉴스 보도량 차이에 대한 Scheffe의 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10>에 따르면, 전체 6가지 비교사례 중 두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고

<표 10> 신문사와 국가별 국제뉴스 보도량에 대한 다중 비교 분석

집단 I		집단 II	평균차 (I-II)	표준오차	유의확률
지역지	3세계	3세계	-422.45	150.64	.050
		1세계	-324.50	113.12	.042
	1세계	3세계	-324.82	138.97	.142
		1세계	-226.88	97.05	.142
전국지+1세계		전국지+3세계	-97.94	122.11	.886
지역지+1세계		지역지+3세계	97.63	131.15	.907

있다. 지역지의 제3세계에 대한 평균 보도량만이 전국지의 제3세계와 제1세계에 대한 보도량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지가 제3세계에 대해 보도하는 뉴스의 양이 전국지가 제1, 제3세계에 대해 보도하는 평균 기사량보다 상당히 적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3세계에 대한 평균 보도량에 있어서 지역지와 전국지 간 차이는 약 423문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지가 지역지에 비해 제3세계에 대한 기사의 평균 보도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세계에 대한 지역지의 기사의 수는 전국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88대 73 기사), 제3세계에 대한 지역지의 국제뉴스 평균 기사량은 전국지의 경우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기사 평균 약 639대 1062 글자).

한편 제1세계에 대한 지역지와 전국지간 국제뉴스 보도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1세계에 대한 보도량보다 제3세계에 대한 보도량에 있어서의 신문사 유형(지역지, 전국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지가 제3세계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도하는 뉴스의 양은 전국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 간 국제뉴스 보도에는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지가 제1세계 국가들에 대한 정보 의존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사 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국지가 지역지에 비해 제3세계보다 제1세계에 더 많은 기사 의존 현상을 보여주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국제뉴스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국제뉴스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신된 국제뉴스 상품이 어떻게 국내 정보

시장에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관련된 정보의 질적, 양적 불평등 현상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우리의 정보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국제정보가 국내에서 어떻게 재편되어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내 국제뉴스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틀로써 본 연구는 상품으로써의 뉴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미디어 경제학적 논의를 근거로, 신문 시장 규모에 의한 국제뉴스의 유의미한 차별화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1세계와 제3세계간 정보 불평등 논의가 시장 규모별로 어떻게 특성화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첫번째 가설은 한국 신문 시장 규모별 상이한 국제뉴스 유형을 가설하고 있다. 국제뉴스 기사 수와 보도량에 대한 신문사 유형별 뉴스 유형에 대한 연구는 두 변인 즉, 신문 유형(지역지, 전국지)과 뉴스 유형(선정적, 공공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뉴스 유형과 신문사 유형간 국제뉴스 보도차이에 관한 연구는 기사 수와 보도량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지 내 선정적 뉴스에 대한 공공적 국제뉴스 기사의 비중은 지역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선정적 뉴스에 대한 평균 보도량은 지역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국지는 지역지보다 공공적 국제 기사를 많이 게재하지만 기사의 평균 보도량에 있어서는 선정적인 뉴스가 공공적 뉴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은 시장규모에 위치한 언론사가 공공적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큰 시장규모의 언론사는 선정적 뉴스를 더 많이 다룰 것이라는 논의를 보도량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신문사 규모에 의한 국제뉴스 내용의 차별화는 기사 수와 보도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혀주고 있다.

<연구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대한 시장 규모의 영향을 가설화한 미디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선정적 국제뉴스의 보도량 측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선정적 뉴스가

시장규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시장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뉴스 유형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자들의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에서 유통되는 뉴스 상품으로 보는 미디어 경제학자들의 논의는 뉴스 장르별 그리고 측정단위별(기사 수 혹은 보도량)로 새로이 평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Carroll, 1985; Carrol & Tuggle, 1997; Ryu, 1982)이 방송보도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개념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체별 특성에 대한 미디어 경제학적 고찰도 향후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두번째 제기된 연구가설은 기존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국가간 정보 불평등 논의와 관련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도된 국제뉴스 기사의 수나 평균 보도량에 있어 제3세계는 제1세계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제3세계와 관련된 기사의 수가 전체 기사의 26%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3세계는 선정적 뉴스보도 그리고 제1세계에는 공공적 뉴스보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세계에 대한 공공적 뉴스의 수는 선정적 뉴스의 수보다 두 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보도량에 대한 분석 또한 제3세계에 대한 선정적 뉴스가 공공적 뉴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불평등한 정보의 양과 질을 주장한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논의(Masmoudi, 1984; Potter, 1987; Weaver & Wilhoit, 1981)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미해결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뉴스 출처에 대한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파악되지 못한 해외 통신원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교통·통신에 의한 새로운 국제뉴스 취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된 국제뉴스의 서구 메이저 통신사의 의존이 여전히 상당히 높게 나타나(48%),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의존비율인 45.8%(Chang, 1988)와 40.91%(이상철, 1997)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신문들이 국가간 균형된 보도를 위해 국제뉴스 정보원의 다양성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규모에 의한 신문사 유형이 국제뉴스에서 보도된 국가

유형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지와 전국지는 모두 제1세계에 대한 기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지는 제1세계에 대한 기사가 분석된 전체 기사의 83%를 차지함으로써 지역지의 경우(60%)보다 국가별 양적인 정보 불평등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사 유형과 국가 유형간 보도량에 대한 변량분석과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분석은 제3세계에 대한 지역지의 평균 보도량이 전국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족한 가용자원으로 인해 소규모 시장에 위치한 언론은 보다 강력한 지명도를 가진 국가 즉, 제1세계에 대한 보도가 많고 상대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보도는 적은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²⁾

결론적으로 미디어 시장 규모별 뉴스 생산 메커니즘은 국내에서 재생산되는 국제뉴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적용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정적 국제뉴스 보도, 그리고 기사화되는 국가 유형(특히, 제3세계)은 시장규모라는 미디어 경제학적 요인에 따라 설명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디어의 시장규모 변수는 국제뉴스의 유형과 대상 국가 유형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이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미디어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뉴스의 국내 재생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설의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분석 대상을 통해 폭 넓게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체별 차이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김경모 (2000). 중앙일간지 국제면의 기사선정 유사성에 관한 연구: 국제뉴

2) 제1세계에 대한 신문사 유형(지역지, 전국지)별 평균 보도량 차이는 다중 비교 분석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 스 보도의 조직적 결정요인. 『한국언론학보』, 43(3), 5~39.
- 김원태 (1991). 지방신문의 국제뉴스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학교.
- 박천일 (1995).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메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한국KBS, SBS와 미국 CNN의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봄, 통권 제7호, 70~97.
- 심재철 (1997). 일탈성 뉴스가치 중심으로 본 한국 신문의 국제뉴스 보도. 『언론과 사회』, 봄 통권 15호, 33~61.
- 이상철 (1997). 한국신문이 보도한 국제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6(1), 중앙대언론연구소.
- 한국언론재단 (2003). 중앙 종합일간신문·통신 매출액 현황. 『2003/2004 한국신문방송연감』.
- _____ (2003). 지방 종합일간신문 매출액 현황. 『2003/2004 한국신문방송연감』.
- Carroll, R. L. (1985). Content values in TV news programs in small and large markets. *Journalism Quarterly*, 62, 877~882, 938.
- Carroll, R. L., & Tuggle, C. A. (1997). The world outside: local TV news treatment of imported news. *Journalism Quarterly*, 74(1), 123~133.
- Chang, W. H. (1988). *Mass communication and Korea*. Seoul: Sungkok Foundation of Journalism.
- DeFleur, M. L., & Ball-Rekeach, S. (1989).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5th ed.). NY: Longman.
- Haque, S. M. (1983). Is U.S coverage of news in Third World imbalanced? *Journalism Quarterly*, 60, 521~524.
- Jeffres, L. W. (1997). *Mass Media Effects*(7th ed.). IL: Waveland Press.
- Kim, K. (200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news coverage in Korean newspapers. *Gazette*, 65(1), 65~85.
- Kurian, G. T. (1992). *Encyclopedia of the Third World*(4th ed.). NY: the Maple-Vail Book Manufacturing Group.
- Lacy, S., Chang, T., & Lau, T. (1989). Impact of allocation decision and market factors on foreign news coverage. *Newspaper Research Journal*,

- 10, 23~32.
- Lang, J. C. (1984). National development and news values: The press in the Third world and the West. *Gazette*, 33(2), 69~86.
- Lent, J. A. (1977). Foreign news in the American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27(1), 46~51.
- Masmoudi, M. (1984). The new world information order. *Journal of Communication*, 29(2), 172~185.
- McManus, J. H. (1995). A market-based model of news production. *Communication Theory*, 5(4), 301~338.
- McManus, J. H. (1990). How local television learns what is news. *Journalism Quarterly*, 67, 672~283.
- McManus, J. H. (1994). *Market-driven journalism: let the citizen beware?* CA: Sage.
- McNelly, J. T., & Izcaray, F. (1986). International news exposure and images of nations. *Journalism Quarterly*, 63(3), 546~553.
- Musa, M. (1990). News agencies, transnationalization and the new order. *Media, Culture and Society*, 12, 325~342.
- Perry, D. K. (1990). News reading,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Journalism Quarterly*, 67(2), 353~358.
- Perry, D. K. (1987). The image gap: how international news affects perceptions of nations. *Journalism Quarterly*, 64(2), 416~421.
- Peterson, S. (1981). International news selection by the elite press: A case study. *Public Opinion Quarterly*, 45, 143~163.
- Potter, W. J. (1987). News from three worlds in prestige U.S. newspapers. *Journalism Quarterly*, 64(1), 73~79.
- Reeves, G. (1993). *Communications and the Third World*. NY: Routledge.
- Ryu, J. S. (1982). Public affairs and sensationalism in local TV news programs. *Journalism Quarterly*, 59(Spring), 74~78, 137.
- Semmel, A. (1976). Foreign news in four U.S. elite dailies: some comparison. *Journalism Quarterly*, 53, 732~736.
- Singleton, W. D. (1990). Profit and quality. *Washington Journalism Review*, July/August, 31~35.

- Soloski, J. (1989). News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some constraints on the reporting of the news. *Media Culture & Society*, 11(2), 207~228.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80). *Community conflict and the press*. CA: Sage.
- Wallerstein, I. (1987). Patterns and perspective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In P. R. Viotti & M. V. Kauppi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Y: McMillan.
- Weaver, D. H., & Willhoit, G. C. (1981). Foreign news coverage in two U.S wire services. *Journal of Communication*, 31(2), 55~63.

(최초 투고 2004.08.30., 최종원고 제출 2004.10.10)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News in the National and the Local Newspapers

Gyo-Tae Ku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Media & Visual Communication, Keimyung University)

Sei-Chull Kim

Professor

(College of Media & Visual Communi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internal mechanism in selecting, sorting, and producing international news coming from foreign country. With a perspective of media economists, this study hypothesiz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newspaper(regional vs. national), based on news markets, and the type of international news(sensational vs. public affairs), between the type of country(the First vs. Third world) and the type of news, and between the type of news market and the type of nation).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press and the type of news, with some internal inconsistency on the number of article and the amount of coverage. Further, this study revealed there was still an imbala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Third country in terms of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ternational news. Also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ype of newspaper and the type of country.

Keywords: international news, news production, news market, type of news.